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검사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쯤 가면 막기자는 거죠"라고 쓰아붙였다. 2003년 3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노대통령과 전국검찰과의 대화장면. (광주일보 자료 사진)

검찰 '침묵 모드'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가 원인” 책임론 확산 곤혹

임채진 총장 사퇴설 등 수사라인 전원 교체설도

일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를 놓고 검찰 책임론이나 '검찰수사가 동기'라는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에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 최대한 예우했고 사법처리를 미룰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다면서도 책임론에는 '침묵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전직대통령에 망신만' vs '최대한 예우' =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유서에 담긴 짧은 문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

이다.

한 달 넘게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과 각종 의혹이 섞여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공개되는가 하면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변호인을 통해 해명을 내놓고 다시 그 해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을 것이라는 게 심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소환조사 때 각별히 신경 쓰는 등 수사 절차에서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다.

◇'사법처리 늦춘 것도 잘못' vs '상황변화 때문' = 대검 중수부는 작

년 9월부터 노 전 대통령의 형 건광씨와 후원자인 박연차·강금원·정화삼씨, 측근인 정상문·이광재·이강철씨 등을 잇따라 구속했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해 권양숙 여사를 한차례 소환하고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씨까지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직후인 이달 4~6일께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였던 사법처리는 그러나 20일 넘게 미뤄졌다.

그 사이 권 여자 재소환 계획 등이 나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심적 부담은 극에 달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쪽의 논리다.

이에 대해 검찰은 권 여사가 박 전

회장한테 받아 썼다고 주장한 3억원이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되는 등 애초 해명과 다른 정황이 나와 권 여자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중 박 전 회장이 딸 정연씨 측의 미국 계좌로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책 책임론엔 "일단 수사 매듭부터" =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의혹을 사실인 양 언론에 흘리고 무책임한 수사를 벌여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잡배로 만들었다"며 검찰을 거칠게 몰아부쳤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채진 총장의 사퇴설도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신병처리와 나머지 정관계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 등을 모두 마무리하고서 지휘부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게 옳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나라 중진들 '盧와의 인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민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노 전 대통령과 과거 '인연'을 맺었던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몽준 최고위원을 비롯, 박근혜 전 대표, 허태열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등이 바로 그들.

이들은 정치인 노무현과 경쟁과 대립, 협력과 배신 등 우여곡절의 관계를 맺었다.

정치적으로는 정 최고위원과의 인연이 가장 깊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국민통합 21의 대선 후보였던 그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의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두 후보는 여론조사 등을 통한 후보단일화에 합의, 승부수를 던졌고 예상은 깨고 노 후보가 단일후보가 됐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투표일 전날 갑작스런 '지지 철회' 선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그 전날 노 후보가 유세에서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 정동영·추미애 의원 등을

박근혜 "참 나쁜 대통령"
정몽준 대선 직전 '결별'
안상수 사법연수원 동기

거론하는 등 서운한 대접을 받게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의 배신(?)은 동정심과 위기의식을 자극,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변수로 작용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갈등의 기억이 대부분이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종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2004년 3월 당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처지였다. 박 전 대표는 2005년 8월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이 난항을 겪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한마디로 거부했고, 2007년 1월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도의 '원-포-인트' 개헌 언급에 대해서도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무산시킨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당 대표를 지내면서 노 전 대통령 등 여권과의 대결 속에 5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 '40대0'이라는 완승을 거두면서 '정치적 거목'으로 도약,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인가 하락 덕(?)을 가장 많이 본 정치인이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한나라당의 아성인 부산에 뛰어난 노 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된 뒤 지금은 중진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946년생으로 노 전 대통령과 동갑인 데다 사시 17화로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다. 그는 최고위 회의에서 1976년에 노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보이며 "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깊은 감회에 젖었고 정치가 팽팽하지 않고 화해·평화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충격의 박연차 입 닫을까

침묵·진술 반복시 수사·재판에 큰 차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대검찰청 중수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물론 그동안 줄줄이 기소됐거나 기소가 예정된 인사들의 재판 향방에도 돌출 변수가 생겼다.

지금껏 검찰 수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돼 왔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박연차 수사와 재판에서 돌연 입을 닫아 버릴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 인수 비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이후 대

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떠받치는 주요 축이 돼 왔다.

이에 따라 그가 금품 공여 혐의의 피의자이거나 증인으로 돼 있는 재판만 해도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의 형 건광씨, 정대근 전 농협회장, 정화삼·정광용 씨 형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 등 줄잡아 1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신병처리

않두고 투신을 선택함에 따라 박 전 회장이 심적 충격의 여파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입에 자물쇠를 채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바로 이 점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겸하는 수사팀을 곤장하게 만들고 있다.

만일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입을 닫게 되면 검찰로서는 남아있는 수사는 물론 기소한 인사들의 재판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진술 외에도 각종 직·간접적인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든 돈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청탁 목적이 아니었다거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면 유·무죄 또는 형량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檢 "박연차 게이트 수사, 장례 후 재개"

검찰은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나면 곧바로 청구하는 등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24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장례가 끝나면 또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부패 수사를 해야 하고, 하게 도와줘야 한다. 남은 수

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를 감안해 수사일정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되 장례식이 끝나면 곧바로 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는 등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최상의 스크린 골프클럽이 당신을 "VVIP"로 모십니다!!

SGJ

시립부산스�크린골프클럽

T: 051-651-0742

F: 010-3095-0050

6월 5일 OPEN

아이엘리시아

051-671-1199